김동인의 소설 □감자□ 와 유수프 이드리스의 소설
□금기□ 소설 비교 연구

دراسة مقارنة بين "البطاطس" للكاتب كيم دونج إين
و"الحرام" ليوسف إدريس

Dr Mahasin Muhammad Muhammad Abd al-Wahhab
Lecturer, Korean Language Department
Faculty of Al-Asun, Ain Shams University

د. محاسن محمد محمد عبدالوهاب
مدرس بقسم اللغة الكورية
كلية الألسن، جامعة عين شمس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amzza" by Kim Dong-In and "Al Haram" by Yusuf Idris.

Abstract:

Kim Dong-in's "Kamzza" and Yusuf Idris's "AlHaram" explore the colonial realities brought about by foreign domination, the suffering caused by poverty, and the process of moral decay in human nature. Both stories are very famous works and are considered a significant part of modern Korean and Arabic literature. Both works share several similarities in themes, narrative techniques, and symbolism, directly addressing class conflict and the transformation of ethical values. They also critique a society where materialism alters and governs all values. Both pieces realistically depict the lives of poor and marginalized laborers under colonial rule in Egypt and Korea. This study compares the literary them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analyzing the themes, characters, and symbols. The writing styles of the authors are characterized by a unique and distinctive artistic approach. Both works focus on the lived reality in a way that emphasizes describing the psychological state of individuals in a society marked by social inequalities, and the negative impact this has on their lives.

Keywords: Comparative literature, haram, potatoes, symbolism, characters

دراسة مقارنة بين "البطاطس" للكاتب كيم دونج إين و "الحرام" ليوسف إدريس

الملخص:

تناقش "البطاطس" للكاتب الكوري كيم دونج إين و "الحرام" ليوسف إدريس واقع المجتمعات تحت وطأة الاحتلال الأجنبي والفساد والإقطاع وتبعات ذلك من انهيار للمنظومة الأخلاقية، والشقاء بسبب الفقر والعوز. ويلتقي العمالان عند هذه الفكرة وأساليب السرد والرمزية، والتناول المباشر للصراع الطبقي، وانهيار الفضيلة والآداب المتوارثة. وتدور أحداث العملين حول "الأنفار" عمال الأجرة وخاصة المرأة المقهورة في مجتمع يفتقر للعدل، وما يعترتهم من نظرة مادية بعيدة عن الإنسانية بأسلوب واقعي يرسم المجتمع بأسلوب سردي مميز، يحكي تفاصيل المجتمع بكل صورته. ويتناولان بشكل مباشر الصراع الطبقي وتحول القيم الأخلاقية. كما ينتقدان مجتمعاً يسيطر عليه المادية، ويفتقر للعدل وتبدل جميع القيم. وتصف كلتا الروايتين بشكل واقعي حياة العمال الفقراء والمهمشين تحت الحكم الاستعماري في مصر وكوريا. وتهدف هذه الدراسة إلى مقارنة العملين وخصائصها، من خلال تحليل الموضوعات، والشخصيات، والرموز، والتعريف بالكاتبين والعوامل التي يصورانها في كتاباتهما. ويتميز أسلوب الكاتبين بأسلوب فني فريد ومميز، حيث يركز العمالان على الواقع المعاش بأسلوب يركز على وصف الحالة النفسية للفرد، في ظل مجتمع يعرف مجموعة من التفاوتات الاجتماعية وما يخلفه ذلك من أثر سلبية على حياة الفرد.

الكلمات المفتاحية: أدب مقارن، الحرام، البطاطس، الرمزية، الشخصيات

김동인의 소설 「감자」와 유수프 이드리스의 소설 「금기」
소설 비교 연구

I. 서론

1. 연구 목적

이집트와 한국은 매우 먼 나라다. 살아온 환경, 사람들, 문화가 다르고 아주 먼 곳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공통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의 유사성은 두 나라의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현상을 만들어내었다.

대표적인 것이 문학작품이다. 한국이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집트도 외국의 지배를 많이 받았다. 외국의 지배를 받던 시기의 작가들은 정치적인 분위기와 현실을 직시하면서 국민의 고뇌를 작품으로 표현했다. 당시에는 다양한 인물의 심리, 삶의 병리를 비롯해 부패, 질병, 빈곤 현실을 섬세하게 묘사한 세대, 풍속 소설이 많이 창작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룬 두 소설은 식민지 통치하에서 겪은 고통을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고, 멀리 떨어져있는 두 나라를 서로 가깝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양국 간의 문학 작품을 비교 연구하는 이 논문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첫 걸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김동인의 「감자」와 유수프 이드리스의 「금기」는 외국의 지배가 불러온 식민지 현실과 가난으로 인한 물질의 고통 및 인간의 본성, 도덕이 부패해가는 과정을 다룬다. 두 작품은 주제, 서술 기법, 상징 등 여러 비슷한 점이 있고, 빈부갈등과 윤리적 가치의 변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물질이 모든 가치를 바꾸고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도 다루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식민지 치하의 이집트와 한국의 가난하고 불쌍한 품팔이 노동자의 생활을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 작품 자체의 문학적 주제와 특징, 인물과 상징을 분석하고 비교한다.

이집트와 한국이 서로를 알고 이해하게 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의 문화와 문학작품을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본 연구 목적은 두 나라간의 문학작품을 번역하고 비교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문학 작품에 나타난 보편적 가치를 고찰하는 데에 있다.

2. 연구 내용

비교 연구로서 작품 분석 전에 줄거리를 제시하면서 비교 문학의 뜻과 어떤 학파에 따를 것인지 제시하고, 작품의 주제를 분석하고 전체 줄거리 비교부터 시작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주제를 분석하면서 두 작품 사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주인공을 변화하게 하는 사회 현실에 중점을 두는데, 이러한 사회 현실, 즉 시간 배경과 공간 배경에 대해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물과 상징을 분석하여 비교 연구를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을 표시한 뒤에 그 인물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을 다룰 것이다. 이것은 그 사회에서 변해 가는 주인공의 상황과 그 주변 현실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의도가 있다. 따라서 작품을 각각 다루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한다.

II. 「감자」와 「금기」의 비교 연구

비교란 언제나 적어도 비교하려는 대상과 이것과 비교되는 객체가 있어야 하고, 두 대상 간의 비교는 언제나 동질성과 차이점이 드러날 것을 전제로 한다. 비교 문학이라는 학문은 다른 국가와의 차이, 자국 문학의 독자성, 고유성에 대한 열망 등을 배경으로 하여 태동하였다. 즉 비교 문학은 두 나라 이상의 문학을 비교 연구하여 각국의 문학적 특성을 상호 비교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사전적 정의에 의거한다. 다시 말해서 비교 문학의 한 손에는 우리 민족과 국문학이, 다른 한편에는 다른 민족들의 언어와 정신이 들려 있다.

문학은 허구적 산문이며 환경, 인물, 사건들로 이루어진,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대한 허구 묘사라고 한다¹. 그래서 작품 분석 과정에서 시공간 배경, 인물, 사건과 상징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

학과의 이론을 따라 문학 작품의 원천과 영향의 총체가 아닌, 문학의 내재 현상으로서의 본질을 추구하여 그 보편성을 찾으려고 한다. 즉 두 작품간의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은 것이거나 관계가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비교한다.

소설의 3 요소를 비교해보면 주제와 문체는 두 작품이 비슷하지만 구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구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작품의 장르가 다르기 때문인데 「감자」는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사건, 인물, 갈등이 제한적이지만 장편소설인 「금기」는 사건과 인물, 갈등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1- 작품의 줄거리와 주제 분석

우선 주제와 줄거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다. 「감자」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금기」의 주제 역시 불운한 환경이 빚어낸 한 여인의 운명적 비극이다. 제재도 똑같다. 한 여인의 타락한 삶과 비참한 죽음이다.

1.1 김동인의 「감자」의 줄거리

복녀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농가에서 자라난 처녀였다. 하지만 가난이 문제였을까. 아낙네들이 소일하면서 큰 돈을 버는 것을 보며 복녀 자신도 몇몇 감독에게 몸을 더럽히게 되고 정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 중국인 왕서방에게 감자를 도둑질 한 것을 들키게 되고 왕서방에게도 몸을 더럽힌다. 그러나 왕서방이 장가를 들게 되자 복녀는 질투를 하고 왕서방은 낮으로 복녀를 죽인다².

1.2 유수프 이드리스의 「금기」의 줄거리

이 이야기는 한 마을에서 발생한 아기의 질식사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마을 경비병이 수로에서 목욕을 하고 나온 후, 죽은 아기를 발견하고 사건이 시작된다. 사건은 마을 사람들, 특히 면장 피키리 아파디와 주민들 사이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아기의 어머니를 찾는 일이 급선무로 떠오른다. 사건을 조사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이주민들에게 돌린다. 이주민들은 가난과 착취로 고통받는 집단으로, 마을 원주민들은 그들을 멸시하며 "먹고 요행을 바라는 배고픈 인간쓰레기"라며 비하했다.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면장은 마을의 여자들을 차례로 조사하지만 어떤 유의미한 단서도 찾지 못한다. 그러던 중 면장이 이주민 중 한 여인 아지자를 발견하고, 그녀가 아기의 엄마를 알게 된다. 아지자는 남편과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힘든 일을 하던 이주민 여성으로, 남편의 병과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려 애썼다. 아지자는 남편의 소망을 이뤄주기 위해 고구마를 캐던 중 지주 아들인 젊은 남자에게 도움을 받으며 불행하게도 임신하게 된다. 이후 아지자는 일을 계속하며 아이를 출산하고, 고통 속에서 아기를 질식시켜 죽게 만든다³.

소설의 후반부에서는 아지자가 아기를 낳은 장소로 달려가 미친 듯이 고통을 토로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묘사된다⁴

1.3 두 작품의 줄거리 비교

발단: 「감자」에서는 얌전하게 자란 복녀가 돈에 팔려 게으름뱅이 홀아비에게 시집간다. 「금기」에서는 농가에서 자란 도덕성이 있는 아지자가 압둘라와 결혼해서 1 남 2 녀를 낳았다. 두 사람은 일을 했고 이주민들과 함께 이동하여 손에 들어온 것은 단 몇 푼에 불과했지만 가정은 행복했다.

전개: 「감자」의 복녀는 게으름뱅이 남편 때문에 빈민굴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금기」의 아지자는 남편이 병에 걸리자 역시 일을 중단했고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해 가끔 이웃집에서 이것 저것 일을 했다.

위기: 「감자」에서 복녀는 빈민굴 생활을 하는 동안 일본인 감독에게 정조를 내놓고 중국인 농장주 왕서방을 상대로 매음을 했다.

「금기」에서 위기는 아지자가 일터에서 질식사한 아기의 발견 배경인 가난한 삶을 살며 젊은이에게(무함마드 이븐 까마라인) 정조를 내놓고 나서 아기를 낳고 질식시켰을 때까지 걸친 것이다.

절정: 「감자」는 복녀의 도덕관 내지 인생관은 변하였다. 내면적 갈등은 커녕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이 일을 한 뒤부터 자기 자신을 찾았다고 한다. 「금기」의 아지자가 불행한

아기를 임신했다가 아기를 낳고 질식시키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미쳐서 소리쳤고 중얼거렸을 때까지 자신의 탓을 하였다. 아기를 낳고 하던 일을 가서 계속하다가 열병에 걸리고 힘이 빠졌다. 정신을 잃는 상태에도 아들에게 미안해하며 말하듯 ‘아기야, 엄마 미안해. 엄마의 탓이 아니야 고구마의 탓이야, 아기야’라고 중얼거린다. 그리고 밖에 혼자 있을 때 임신한 사실을 숨기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죄인이지”라고 계속 죄책감을 느꼈다.

결말: 「감자」의 복녀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무덤으로 가는 것도 늦었고 그녀의 죽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도 안 준다.

「금기」의 경우는 아지자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농민들이 이주민들과 어울리듯, 그녀의 죽음은 이들을 모두 하나로 묶는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고 중요성을 갖는다.

또한 작품의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작가가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정리한 사건 순서를 두고 주제 분석 각 부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했다. 먼저, 발단에서는 여주인공들이 정직한 농가에서 정숙하게 자라난 처녀였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복녀는 홀아비 남편보다 스무 살이나 더 어리고 결혼한 다음에 불행한 삶을 살았다. 아지자는 압둘라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난했지만 같이 이동하고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리고 전개 부분에서 작가들은 여주인공이 밖에서 혼자서 애를 쓰면서 일하게 만든 이유를 말하는 데, 이 부분에서 두 작품이 다르다. 김동인은 남편의 게으름이 복녀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라고 그렸지만 아지자의 삶은 남편의 질병으로 어려워졌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절정으로 도달한다. 복녀는 남편과 칠성문 밖으로 쫓겨나오고 가난, 배고픔과 필요로 인해 거지가 되고 막벌이로 일을 하게 되었다. 역시 아지자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완전히 손을 들지 못했을 때부터 자기 가족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 이웃집에서 힘든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힘이 없는 약한

순간에, 복녀가 돈이 필요했을 때, 아지자가 남편과 가족을 먹이려고, 남편과 만남을 그리워했을 때, 그 순간에 복녀는 일본 감독에게 자신을 바치고 아지자도 고구마 지주 아들에게 자기 자신을 포기했다. 그 순간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복녀는 어려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빈민굴에서 공공연한 비밀인 창녀의 길을 선택해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아지자는 죄책감의 느낌이 들고 아픈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고 원래 자신의 생활로 돌아왔다.

절정을 보면 복녀의 머리부터 생활까지 변했다. 밤에 나가서 돈벌이를 하다가 왕서방을 만났을 때부터 조금씩 달라졌다. 하룻밤만 만난 사람이 아니었고 자주 만나니 빈민굴 사람들도 알게 되었고 남편도 알게 되었다. 아지자의 경우에는 막벌이로 다른 마을에 이동해서 예전처럼 일하다가 사생아를 낳았을 때부터 마을 사람도 알고 소문이 퍼졌다.

결말에는 복녀가 왕서방의 결혼 소식 때문에 질투하고 마음이 상해지고 빈민굴의 여성들이 비꼬기 시작했다. 아지자의 마음도 아팠다. 아들을 잃은 아픔과 산후 조리의 아픔과 스캔들을 피하기 위한 아픔이었다. 다만 이주민들과 원주민들은 아지자가 불쌍하다고 위로도 했다.

결말을 크게 보면 결국은 하나이다. 즉 복녀든 아지자든 비참한 죽음이다. 복녀는 마음이 가는 왕서방의 집에서 죽고 아지자는 아이를 낳고 질식한 장소에서 죽는다. 복녀는 좋아했던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는 복녀를 죽였다. 아지자도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지만 아들을 죽인 슬픔은 결국 그를 죽였다.

그리고 결말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작가의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 보인다. 결말을 짓는 방법에서 시대적 배경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감자」를 쓴 1925 년은 일제 강점기였으며 김동인의 절망적인 시각으로 인해 해결이 없는 결말이 나왔다. 즉 부정으로 치닫거나 해결책을 삼지 않은 것이다. 복녀가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금기」가 1959 년에 등장했을 때 이집트는 영국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찾는 시대였다. 그리고 또 작가의 희망적인 시각으로 이러한 결말이 나왔다.

아지자의 죽음은 이들을 모두 하나로 묶는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고 중요성을 갖는다. 그들 모두가 그녀에 대한 슬픔과 울음에 동참하였으며 여인들의 눈물과 남자들의 침묵 속에 그녀의 남편 집으로 관용차를 준비하고 보내는데 함께 했다. 그들의 태도 변화는 농민들이 그녀의 죽음에 위로를 보낼 때 명확해졌으며 그들과 이주민간에 새로이 발견된 우정이 병을 낫게 해주는 속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버드나무로 상징된다.

그리고 주제를 강화시키는 「감자」와 「금기」 간에 다른 공통점과 특징이 보인다. 우선 20~30년대에는 식민지 치하에서 이집트와 한국 사회의 공통적인 현실이 보인다.

예를 들어

가. 다양한 계층과 모습으로의 빈곤이 퍼짐.

나. 건강적 무지, 종교적 무지, 경제적 무지, 사회적 무지 등 다양한 형태의 무지.

다. 관리하고 다스리는 계층과 근면한 계층으로 나뉘는 사회.

라. 인간성의 상실.

마. 빈곤으로 인해 탈출의 희망 손해.

「감자」와 「금기」에서는 빈곤 때문에 사회 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빈곤은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주면서 고난의 비극 분위기를 창조한다. 작품을 읽고 나서 빈곤으로 인해 없어진 진실, 거짓 등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 도덕 가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깨달을 수 있다. 즉 이 어두운 현실에서 도덕 가치가 지워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위험은 「감자」의 복녀를 둘러싼 위험과 「금기」의 아지자를 망치는 위험이 다르지 않다. 타락과 실망과 고난으로 일어난 위험이다. 둘 다 비극적 죽음을 당했을 때까지 사회가

보기에는 창녀가 되고 복녀는 아지자처럼 살인자가 된 뻔했지만 반대로 죽임을 당했다.

빈곤과 필요는 복녀가 일본 감독의 성적 욕심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유이며 복녀가 찾고 있었던 돈도 더 벌 수 있다고 알게 되어서 몸을 파는 길을 선택했다. 아지자도 그랬다. 가난과 돈, 성적 필요 때문에 지주 아들인 젊은이에게 자기를 포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지자가 복녀와 달리 앞의 길을 다르게 선택했다. 그것은 비교 과정에서 역시 중요한 차이이다. 이집트 문화와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창녀는 비난 받을 수 밖에 없다. 한국에서도 매춘은 불법이지만 그 때 당시의 칠성문 밖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된 것처럼 일반적인 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이집트에는 린다 이야기처럼 보통 섹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몰래 한다.

아지자가 냉혹한 관습을 깨뜨릴 수 밖에 없었고 사회의 허약한 희생자로서 스캔들과 더 큰 희생을 피하기 위해 태어난 아기를 희생시킬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바로 여주인공의 책임이 아닌 사회 관습의 여파이고 결과이다. 따라서 그녀들의 비극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이집트나 한국 정치, 경제 구조적 모순이 낳은 사회적 비극으로 보아야 한다.

두 작품은 사회 관습의 병폐와 금기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역시 공통점이다.

2- 배경 분석

두 작품에서의 시공간 역시 비슷하다. 「감자」는 1920 년대 일제 강점기이고 「금기」는 1930 년대이다. 그리고 공간은 「감자」에서는 평양 칠성문 밖 빈민굴이며 「금기」에서는 이집트 북부지역의 한 가난 시골 마을이다.

2.1 시간적 배경

한국에서 1920 년대 전반기는 한국근대문학사상 근대소설의 형성에 있어서 특별한 시기로 평가된다. 그것은 이 시기에 들어 새로운 문학적 토양이 형성되고 근대적인 성격의 소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과 상응한다.

「감자」의 시간적 배경은 1920년대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극빈층이 생긴 시대이다. 「금기」에도 시간 배경은 이집트 1919년의 만세 운동 후에 영국 식민지치하에 일어난 어렵고 힘든 계층이 나타난 시대였다. 따라서 두 작품의 시간 배경은 외세 강점기이고 지배자인 일본이나 영국인들 외에도 다른 자본주의 외국인들이 많은 시대였다. 지배로 인해 발생한 무지, 빈곤, 도덕의 타락이 퍼진 시대였다. 게다가 「감자」사건의 시간 배경의 차이는 「금기」와 10년 이하로서 아주 가깝다. 단지 주요한 차이점은 작가가 쓴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다. 「감자」는 1925년에 출판된 것이지만 「금기」는 1952년에 출판된 것이다. 즉 김동인은 현실을 그대로 썼는데 그것도 소설의 비극적인 결말이 나온 하나의 요인이다. 반면 「금기」의 출판 년도인 1959년은 이미 이집트가 독립을 얻은 시대이기 때문에 유수프는 희망적이고 김동인처럼 여주인공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결말을 쓰지 않고 해결도 발표하고 상황이 좋아졌다고 언급했다.

2.2 공간적 배경

「감자」에서는 칠성문, 치령문밖, 어느 집 막간(행랑) 살이, 술밭, 감자 밭, 왕서방의 집, 남편의 집 이러한 공간 배경이 있다. 그리고 「금기」에는 여주인공의 원 농촌, 북부 지역의 한 시골 마을, 고구마 들판, 이웃집, 수로, 남편 집 이러한 공간 배경이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의 공간 배경은 크게 나누어 보면 주요한 두 장소-무대가 있을 것이다. 「감자」에서는 복녀가 자라고 시집가고 막벌이로 일한 칠성문안, 그리고 술밭과 감자 들판이 있는 칠성문밖이다.

마찬가지로 「금기」의 공간 배경은 여주인공의 원 마을이고 이주민, 막벌이로 일한 다른 시골 마을이다. 복녀는 칠성문안에 자라고 시집도 가고 남편의 게으름으로 인해 막벌이로 힘든 일을 했다. 그리고 아지자도 원 농촌에서 자라고 시집도 가고 남편 병으로 인해 막벌이로 힘든 일을 했다.

그리고 「감자」의 솔밭이나 「금기」의 고구마 밭이 위기의 공간 배경이 되고, 순수하고 향토적 시골 배경이 반어법으로 묘사된 것은 공통점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감자」의 감자 밭이나 「금기」의 면화 밭은 이야기 전개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의 이동 차례도 같다. 비참한 죽음을 당한 복녀는 왕서방 집에서 남편 집으로, 그 다음에 무덤으로 가게 되었다. 아지자도 그렇게 되었다. 마을에서 남편 집, 그 다음에 무덤으로 옮겼다.

연구자가 강조하고 싶은 공통점은 작가들이 농촌 시골 사회와 시골 생활을 성공적인 반어법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둘 다 농촌 사회의 내적 구조와 사회 불안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했다.

3. 인물 연구와 상징 분석

「감자」는 작가가 스토리에 대하여 신적 입장을 취하는 3 인칭 전지적 시점에 의하여 서술된 소설이다. 즉 한 인물의 유년기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거의 이십여 년에 걸친 기구한 삶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이 소설은 그 제재 면에서 단편보다는 장편으로 그리기에 더 적합한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러한 장편적 제재를 단편 형식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작가의 각별한 스토리의 서술 내지 묘사 기법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그 다음 「금기」는 장편소설로서 작가의 1 인칭 시점으로 서술된 소설이다. 그래서 인물 묘사에 있어서 두 작품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감자」를 기준으로 대표적인 인물의 성격과 주요한 특징을 제시한다.

	<감자>		<금기>
복녀 (여 주인공)	엄한 가정 교육을 받고 자람 도덕관념이 철저했으나 결혼 후 가난 때문에 윤락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쉽게 돈 버는 방법이라며 오히려	아지자 (여 주인공)	압둘라와 결혼해서 같이 일하면서 행복했지만 남편이 병에 걸리자 더 가난하고 힘들어졌고 지주 아들에게 정조를 포기함.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만큼 타락함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으나 질식사시키고 결국 정신이 이상해져서 사망에 아르게 됨
남편	극도로 게을러서 아내인 복녀가 윤락 행위를 하도록 방조하며 왕 서방과 야합하여 복녀의 죽음을 돈으로 거래함	압둘라 (남편)	일을 하다가 병들어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어서 힘든 아내인 아지자에 의존함
왕서방	황금만능주의자.돈으로 복녀의 성을 사다가 결혼할 처녀를 사오고 복녀를 살해 한 뒤 돈으로 해결함	무함마드 이븐 까마라인	지주의 권력이 있고 고구마 값으로 아지자 성을 사다가 버렸음
한방 의사	돈으로 매수되어 살해된 복녀를 거짓으로 진단함	피키리 아판디	마을의 면장- 감독 질식한 아기 엄마를 발견했는데 연민을 가지지만 자기 작업을 잃거나 쫓기기 무서워서 지주에게 알리지 않고 아지자가 죽자마자 남편 집으로 보내도록 함

3.2 상징

먼저 가장 주요한 상징은 두 작품의 주축인 여주인공의 상징이다. 여주인공은 소설에서 보통 조국을 상징한다. 역시 두 작품에서 가장 뚜렷한 공통점이 상징이다. 「감자」의 복녀는 「금기」의 아지자와 마찬가지로 식민 지배하의 비극적 조국의 상징이다. 따라서 두 여주인공은 혼란스럽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계급 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외세 자본주의의 상징으로는 「감자」의 중국인 왕서방이 있고 「금기」의 이집트 시민 자본주의의 상징인 무함마드 이븐 까마라인, 이외에도 지배자의 상징인 「감자」의 일본인 감독과 「금기」의 영국인 마을의 지주가 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조국의 타락에 주요한 원인으로서 소극적인 상징인 「감자」의 복녀의 게으른 남편이 있고 「금기」의 병들어 힘이 없고 아픈 남편이 있다.

이러한 인물로 이뤄진 사회 속에 복녀와 아지자가 살았다. 그리고 여주인공의 타락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

지배란 보통 침략한 나라의 자원을 빼앗고 그 나라를 타락시킨다. 그것을 소설에서 보면 일제의 한국 지배든 영국의 이집트 지배든 이로 인해 빈곤과 무지가 퍼지고 윤리도 어느 정도 무너졌다. 「감자」의 일본 지배의 상징인 일본인 감독은 복녀의 정조를 빼앗고 자본주의 상징인 중국인 농장주 왕서방은 복녀의 성을 돈으로 사다가 그만두어 버렸다. 「금기」에서도 외국 지배자의 상징은 마을 농장주이며 자본주의 상징인 농장주 무함마드 이븐 까마라인은 아지자의 비극적 생활의 원인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바로 여주인공의 개인적인 책임이 아닌 사회 관습의 여파이고 결과이며 그녀들의 비극은 그녀들의 개인의 비극뿐 만이 아니라 한국과 이집트 정치, 경제의 모순이 낳은 사회적 비극으로 보인다.

인물뿐만 아니라 「감자」의 감자와 「금기」의 고구마는 공통적인 상징이 타락, 가난, 필요와 섹스의 상징이다. 인간의 가치보다 더 비싼 것으로서 도덕관과 윤리 붕괴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인물의 이름도 역시 공통점 중에 하나이다. 여주인공들 사이에 인물로서의 공통점들 외에 「감자」의 복녀의 이름 뜻과 「금기」의 아지자의 이름 뜻은 같다. 원래는 복이 많은 여성의 상징이었을 복녀라는 이름이 비극적 여성의 상징으로 그려진 반어가 그러하다.

Ⅲ. 결론

한국 문학을 접하면서 이집트 문학과 비교하게 되었는데 김동인의 「감자」를 읽으며 이집트의 「금기」가 매우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작품을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이집트 일반인들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교양 있는 사람들도 한국 문학을 알게 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빠른 수단이 아닐까 싶었다.

이집트의 아랍 문화와 한국 문화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비교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외세의 지배하에서 도덕에 집착하면서도 타락할 수 밖에 없었던 인간성의 표현이다.

한국 문학 예술의 선각자로 알려진 김동인의 작품 「감자」와 국내 최초로 단편소설을 쓰면서 아랍단편의 왕자인 요새 이드리스의 「금기」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두 작품이 죄지은 여인의 이야기라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그 외에 죄를 짓게 된 이유, 이러한 잘못에 대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받은 영향과 반응은 소설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다.

소설 속에서 성행위에 대한 타부가 어떻게 개인과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즉 여성의 도덕적 붕괴는 불행스럽게도 잘못된 사회 구성원들의 편견과 가혹한 사회관습의 틀 내에서 이해되는 것이다⁵. 당시 시대상황에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놓인 여성 개인이 자본에 의해 변화해가는 가치관을 보여준다.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만, 사회에서는 그들을 그저 매음녀로 볼 뿐이다.

또한 소설은 지주들의 착취와 면장-감독 등으로 대표되는 폭정을 그리고 있으며 봉건 제도를 비난한다.

두 작품에서 여주인공들은 사회관습과 사회부정의 희생자로서 그 배경에 있어서 비슷비슷한 원인들, 즉 지배로 인한 빈곤, 부재, 도덕성의 소멸, 인간성의 타락 등을 찾을 수 있다. 작가가 소설을

통해서 여러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만 두 작가는 부정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약화되고 타락되며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조국을 상실한 이야기를 제시했다. 또한 독자들은 이 작품들이 비단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 아픔, 비극적 이야기란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제는 이집트인들이 조국의 붕괴를 상징하는 여성의 타락의 이야기를 아랍 소설에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배의 고통을 겪고 소설로 묘사한 다른 민족의 공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IV. 참고 문헌

1. 한국어 참고 서적

1. 김동인 『감자, 배따라기』 일신서적 출판사, 2006 년.
2. 김영민 『한국 현대 문학 비평사』 소명출판, 2000 년.
3. 김윤식 『한국 현대 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년.
4. 김윤식- 김현 『한국 문학사』 강남출판, 2007 년.
5. 서준섭 『한국 근대 문학과 사회』 도서출판, 2000 년.
6. 송명희 『현대 소설의 이론과 분석』 푸른 사상사, 2006 년.
7. 이재선 『한국 소설사』 민음사, 2000 년, 한국어문학과 도서실
8. 전완경, 「 유수프 이드리스의 성과 사회 」, 『 이집트 문학 산책 』 ,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9 년
9. 정한숙 『현대 한국 문학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년.
10. 조동일 『한국 문학 통사 5』 지식산업사, 2008 년.
11. 조희선 『이집트 사실주의 단편작가 유수프 이드리스와 이집트 여성- 두 단편집 『정조 사건』 과 『고통언어』 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2003 년,
12. 한상무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푸른 사상, 2007 년.
13. 한용환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부, 2009 년.

2. 아랍어 참고 서적

المراجع العربية

- د/ طه ندا، "الأدب المقارن"، دار النهضة العربية، ١٩٩١.
- د/ عبد الفتاح عثمان، "بناء الرواية" دراسة في الرواية المصرية"، مكتبة الشباب، ١٩٨٢.
- د/ فؤاد طلبية، " يوسف إدريس والتأثير"، مكتبة مصر، ١٩٨٥.
- يوسف إدريس، "الحرام"، مؤسسة هنداوى، ٢٠١٨.

¹ عثمان، عبدالفتاح، 『 بناء الرواية دراسة في الرواية المصرية』، مكتبة الشباب، ١٩٨٢، ص ١١.

² 김동인, 『감자, 배따라기』 일신서적 출판사, 2006.

³ يوسف إدريس، 『 الحرام』، مؤسسة هنداوى سى أى سى، ٢٠١٨، القاهرة.

⁴ 전완경, 「 유수프 이드리스의 성과 사회 」, 『 이집트 문학 산책 』 ,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9 년, 197-200 면

⁵ 전완경, 「 유수프 이드리스의 성과 사회 」, 『 이집트 문학 산책 』 ,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9 년, 201-203 면